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377>

JCCT 2023-5-43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에 재현된 또 하나의 ‘농촌’

Another 'Rural' Recreated in The Movie 〈Yin Ru Chen Yan〉

문대일*

Moon dae il*

요약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는 중국의 서북 지역 농촌 현실을 꺾진하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영화에서는 비록 농민 특유의 성실함과 순박한 사랑도 담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중국 농촌 청년들을 고발하였다. 이는 장기간 제대로 된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실과 괴리된 농촌 주택 정책을 비판하였다. 지역 특성과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돌보는 가축 등을 버려두고 자신만 거주지를 아파트로 옮겨 생활하지 않는다. 셋째, 농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였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부의 주택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중국 삼농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일부 낙후된 농촌 지역도 아우를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주요어 : 중국 농촌, 삼농,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 도농 격차, 문예 영화

Abstract The movie 〈Yin Ru Chen Yan〉 is evaluated to reflect the rural reality of China's northwest region. Although the film also contained the farmer's unique sincerity and pure love, many problems were also raised. The specific issues raised are as follows. First, he accused young Chinese rural people who could not express their intention properly at the time of marriage. This can be said to be largely due to the lack of proper education, medical care, and welfare benefits for a long time. Second, he criticized the rural housing policy that deviated from reality. It warns that unilaterally providing apartments in the city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armers' situations could be counterproductive. In the movie, the main character abandoned livestock that he thought of and cared for with his family and did not move his residence to an apartment. Third, he criticized the materialism prevalent in rural areas. He criticized the phenomenon of not respecting a human being to solve everything with money and even to receive government housing compensation. In this sense, in order to solve the true Chinese Samnong problem, macro-promoted policies and micro-policies that can encompass some underdeveloped rural areas should also be implemented.

Key words : Rural China, Three Agricultural Problems, 〈Yin Ru Chen Yan〉, The Urban-Rural Gap, Literary film

*정희원, 서원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3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일

Received: March 31, 2023 / Revised: April 15, 2023

Accepted: Ma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wendayi@hanmail.net

Associate Professor of 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Seowon Univ, Korea

I. 서 론

2022년 2월 18일, 리루이쥘(李睿珺)의 감독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隱入塵烟)> (총 133분)가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황금곰상 후보까지 올랐다. 같은 해 7월 8일 이 작품이 중국에서 상영된 이후, 관중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단기간에 많은 인기를 누렸다. 공개된 지 62일 만에 1억 위안(약 181억 7,600만 원, 2022년 12월 29일 기준 환율)을 돌파하여 엄청난 흥행을 예고하였다. 이 당시 중국의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영화계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영화산업전문가들은 이 영화를 투자비 대비 가성비 좋은 역대급 영화로 평가하며, 2022년 최고의 문예영화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유례없는 인기몰이에도 불구하고,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는 2022년 9월 16일 극장가에서 갑자기 내려졌고, 이로부터 10일 뒤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영화제목처럼 돌연히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이른바 '금서(禁書) 작품'으로 지정되면 반대급부로 중국 내부를 포함한 기타 국가에서 더 많은 '유명세'를 탄 것처럼, 이 영화도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화 애호가들에게도 오히려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공식적인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에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이 영화를 시청하였다. 또한 영화를 본 후 개인 블로그, 영화 평론 사이트 등을 통해 감상평, 댓글, 대댓글 등을 달면서 상호 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체감한 관객들이 영화에서 재현된 농촌의 현실, 젊은 농민들의 삶에 대한 의지, 부부간의 사랑 등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에 출연한 전문 배우는 여주인공 하이칭(海清) 1명으로 나머지는 실제 장쑤성(江蘇省) 농민들이(남자주인공 우런린(武仁林)은 실제 농부이자, 감독 리루이쥘의 이모부이다) 연기하여 영화의 현재성과 진실성을 부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농촌 현실과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삼농 문제를 연결하여 고찰해보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가 그려낸 중국 농촌의 현실 문제 해독

(解讀)하여 도농 격차를 분석해내고, 중국 정부의 농촌에 대한 미래청사진도 함께 연관 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농촌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고,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I. 중국의 삼농 문제 해결 의지

중국에서 삼농(三農)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매년 초에 발표되는 '중앙1호문건(中央一號文件)'은 중국공산당의 삼농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고, 그에 따른 해결 방향도 제시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문건은 강제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나아가 문화·체육·관광·예술 등 연관 산업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가 촬영(2022년도)되고 개봉(2023년도)되기까지 기간에 발표된 '중앙1호문건'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고,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삼농 문제와 영화에서 재현된 농촌의 현실을 확인해보자.

2022년 2월 22일에 발표된 '중앙1호문건'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촌진흥(鄉村振興)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 특히 2022년에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02.24.)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식품 안전 문제, 식량 공급 문제, 원자재의 공급 등 일련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앙1호문건'에서 식량 생산과 공급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이 점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정 안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수립한 목표이다. 특히 2022년 문건에서는 전염병 발생 상황, 날씨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등의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파종 면적을 확보하여 연간 1.3만 억 근(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밀을 늦게 파종하는 것에 대한 악영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겨울과 봄철에 밭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밖에 약한 묘종(苗種)을 강화시키고, 유류를 생산할 수 있는 대두(大豆)와 식용유 원료의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상술한 주요 식량들의 안전한 생산을 강조함과 동시에,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향촌 진흥을 착실히 진행시키는 것이다. 즉, 지역 농민을 부유하게 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식량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배소득 보험을 들어주어 농민들이 충분하고 가시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어서 2023년 2월 13일에 발표된 ‘중양1호문건’도 ‘농업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加快建設農業強國)’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삼농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2023년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식량 안전 문제이다. 그 뿐만 아니라 농산품의 안전한 공급과 가격의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농산품 중에서 기름을 얻기 위한 유료작물 대두 생산을 강조하였다. 대두 생산의 대한 강조는 2019년부터 실시한 ‘대두 진흥 계획’의 일환으로 연속해서 4년간 재배를 중요시한 농작물이다.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등 불안한 국제정세에 갑자기 닥쳐올 블랙 스완(black swan)을 대비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물 창고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작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23일자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공급의 10%를 차지했고 해바라기씨 기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했다. 러시아 역시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는 평시 4억 명을 먹이기에 충분한 곡물을 수출했으나 전쟁 발발 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작년 2월 570만 t(톤)에서 3월에는 0톤으로 줄었다[3].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의 밀, 대두, 옥수수 등의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대국 중국도 대두와 옥수수 등의 상당 수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블랙 스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문건에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곡물 대두의 생산량을 재삼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농업 기술, 시설, 장비

등의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즉, 농업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도농(都農)의 격차를 점차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기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농민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다. 때문에 혁신적으로 우량의 종자를 개발하고 선진화된 농업 기계로 곡물을 많이 생산해내는 진흥정책을 기획한 것이다. 그 밖에 지난번 문건에 이어서 이번 문건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점은 ‘빈곤 탈출 후 다시 빈곤해지 현상(返貧)’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즉, 대규모 빈곤 회귀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빈곤 탈피 지역 지원정책을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실 일부 농민(촌)이 탈빈곤 후, 반복적으로 다시 빈곤해지면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샤오강(小康) 사회(소위 샤오강 사회란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에 여러 가지 농업 보험 정책과 보조금 정책 등의 향촌진흥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시 빈곤해진 농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밖에 현대 환경에 맞지 않는 농촌의 장례 문화 등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종합해보자면, 최근 발표된 ‘중양1호문건’은 농촌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출발하여 주류 농작물에 대한 생산량의 증대, 경작 규모의 확대, 생산 시설의 선진화 등을 통해 농민(촌)의 수입의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농민(촌)이 부유하게 되면 중국 특색 샤오강 사회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농촌의 발전의 저해가 되는 ‘빈곤 탈출 후 다시 빈곤해지는 현상’, 개선되어야 하는 ‘농촌의 장례 문화’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모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III. 영화에 재현된 또 하나의 ‘농촌’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 현 단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주지하다시피, 농민은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 농촌에 거주한다.

나아가 넓은 범위에서 도시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공(農民工)까지 농민으로 포함한다면, 농민은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언하면, 농민(촌)의 문제를 해결하면 중국 절반 이상의 현안을 해결한 것이고 그만큼 중국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향촌진흥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대화과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공업화, 도시화 정책에 밀려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농촌문제 전문가 윈테권(溫鐵軍)도 일찍이 친자본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농업진흥보다 중공업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단기간에 도시화, 공업화된 것을 여러 차례 비판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 제정된 호구(戶口)제 실시(도시 호구가 없으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된다)와 도시화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농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 버렸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농민(촌) 살리기’ 노력에 불구하고 일부 농촌은 여전히 낙후되었으며, 농민은 고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에서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의 무대가 된 중국 서북(西北) 간쑤(甘肅)성 지역의 한 농촌은 이러한 낙후된 현실을 생생히 반영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영화에서 중국의 낙후된 농촌이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가 도농 격차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민의 혼인 문제와 농촌의 주택 문제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는 중국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농민 혼인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중 남녀 주인공의 만남, 중매 결혼, 결혼 이후의 생활, 죽음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꺾인 농민의 혼인 문제와 주택 문제를 살펴보자. 남자 주인공 마유테(馬有鐵)는 늙은 당나귀 한 필만 가진 가난한 노총각이다. 여자 주인공 차오케이잉(曹貴英)은 요로 질환을 앓아 요실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노처녀이다. 차오케이잉은 어릴 때부터 매를 맞고 자라 결국에는 요금 실까지 얻게 되었다. 이후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할 여력도 없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게

다가 출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남녀 주인공의 설정은 중국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중국 향촌의 60세, 65세 이상의 인구는 향촌 전체 인구 비중의 각각 23.8%, 17.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4]. 이러한 결과는 청년 농민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 도시로 유출되어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 농촌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영화에서 설정된 남녀 주인공은 중국 서북지역의 가난을 탈출하지 못하는 고령의 미혼자들을 반영한 것이다.

계속해서 영화에서는 가난한 농민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남녀 주인공은 자유연애로 결혼하지 않고 가족들의 중매로 결혼하게 된다. 여기서 농촌의 ‘현대화’와 ‘반현대화’의 상징을 ‘자유결혼’과 ‘중매결혼’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들은 남녀 주인공의 의사는 묻지도 앓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주지 않고 결혼을 성사시킨다. 또한 마을에서 최빈곤층에 속한 남녀 주인공은 별다른 결혼식 없이 혼인증명서에 들어갈 사진만 같이 찍고 바로 동거생활을 시작한다. 슬프게도 이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단둘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족들에 의해 떠밀려서 결혼하게 된다.



그림 1. 영화 스틸 컷: 혼인증명서 사진.
Picture 1. Movie still cut: A picture of marriage certificate.

사진1에서 보듯이, 이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평생 남는 혼인증명서에 들어갈 사진을 찍으면서까지 두 사람의 표정과 포즈는 매우 어색하다. 심지어 사진사가 “두 사람 좀 가까이 붙어보세요(两个人靠近一些)”라고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빈농지역 청년들이 자기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어증(失語症)’ 상태를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빈곤한 농촌 청년들은 부당한 관습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금도 실어 상태로 살아간다. 영화에서 이들은 장시간 동안 대사가 없고 서로 눈치를 보며 암묵적으로 행동한다. 농촌의 진정한 혁신과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농업 시설보다, 먼저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유테, 차오케이잉 부부는 결혼식 없이 빈집을 수리하고 꾸며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비록 제대로 된 살림살이는 없었지만, 안분지족하며 여느 평범한 농촌의 부부처럼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행복을 느낄 새도 없이 농촌의 ‘빈집’ 철거 정책에 따라 ‘첫 신혼집’에서 쫓겨 나온다. 이들 부부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농민 특유의 강인함과 우직함으로 다시 새로운 집을 짓는데 모든 힘을 쏟아 마침내 ‘두번째 신혼집’을 완성하지만, 또다시 집이 철거당한다. 이렇게 ‘버려진 빈집 수리 후 주거’ - (정부 정책으로 인해)신혼집이 철거 당함 - ‘스스로 새로운 신혼집 건축’ - ‘신혼집이 재차 철거 당함’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농촌의 주택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림 2. 영화 스틸 컷: 입주할 아파트 인터뷰.
 Picture 2. Movie still cut: Interview with Apartment to move in.

기실 대부분의 다양한 농촌의 주택 특혜 정책은 매우 유용하여 농민의 윤택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나 때로는 농민 실제 삶을 고려하지 못해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사진2는 마유테 부부의 ‘흙으로 만든 집’을 철거하는 대신 주거용 다층 건물(아파트)에 이주할 수 있는 특혜 받아 직접 살집을 방문한 후 소감을 인터뷰한 장면이다. 주변 사람들은 마침내 이들 부부도 도시에 있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했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농촌 주택 정책이라도 심신(心身)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마유테는 농촌 주택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인터뷰에서 ‘사람이 여기서 살면 당나귀, 돼지, 닭은 모두 어디에 사나요?(人住在这里了, 驢了, 猪, 鷄儿都哪里住呢?)’라고 반문한다. 기실 농민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들을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영화에서 도시에 좋은 집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순수한 농민의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농촌 주택 정책과 일부 농촌 현실 사이의 상당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2.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에서 마을의 지주(地主) 장용푸(張永福)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이 필요하였다. 장용푸의 혈액형은 RH-이다. RH-혈액은 희귀하여 병원에 수혈할 혈액이 부족하였다. 때문에 장용푸의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버지에게 수혈해 줄 사람을 공개적으로 찾았다. 이러한 상황의 연출은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부요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재차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지주와 소작농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호혜적인 관계인 것이다.



그림 3. 영화 스틸 컷: 수혈자 모집.
 Picture 3. Movie still cut: Recruitment of blood transfusions.

사진3은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수혈자를 공개적으로 찾는 장면이다. 지주의 아들은 체불된 지세(地租), 임금 등의 장부를 확인해 보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체불된 지세와 임금을 돌려주고, 심지어 작년에 경작하여 팔지 못한 옥수수도 팔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평소에는 소작농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냉담

하게 굴었지만, 수혈 문제로 인해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마유테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RH-혈액형을 가진 사람이다. 처음에는 수혈 요구에 응하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헌혈하고 장용푸를 구해준다. 마유테는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헌혈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장용푸 일가족은 마유테의 선의는 무시한 채 돈으로만 보답하려는 등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일부 빈농지역에서 아직도 만연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물질만능주의가 절정에 다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차오케이잉은 귀가하는 마유테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가다가 강물에 빠져 익사하고 만다. 이에 마유테는 실의에 빠져 부인을 따라 죽는다. 그리고 마유테가 죽자 그가 직접 흙으로 만든 집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철거된다.



그림 4. 영화 스틸 컷: 집 철거.
Picture 4. Movie still cut: Demolition of a house.

전술한 바와 같이, 영화에서는 도시의 아파트 제공 정책 이외에 여러 가지 농촌 주택 정책이 소개된다. 그 중에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의 ‘흙으로 만든 집’을 철거할 때마다 보상금이 1만 5천 위안을 주는 정책도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보상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 마유테의 친인척들은 작당 모의하여 마유테 죽음의 대한 소식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거될 집에 실거주자가 없으면 그만큼 보상이 줄어들거나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상금에 눈이 먼 나머지 마유테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유테는 주변 이웃들과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존중하였다. 그는 죽기 전에 집에 저장해 두었던 밀, 옥수수를 팔아서 번돈 3970위안으로 비료, 농약, 종자 등을 살 때 걸어둔 외상값 1570위안을 갚았다. 그리고 이웃에게 빌렸던 계란 10개도 모두 갚았다. 마지막으로 동고동락했던 늙은 당나귀까지 자연으로 풀어주고 영화제목처럼 마유테도 ‘먼지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3. 순박한 농민의 사랑, 그리고 희망

영화에서는 농민(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농민의 순박하고 근면 성실한 모습은 여러 장면에서 부각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녀 주인공은 제대로 된 집과 세간살이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만 가난한 현실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동경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부지런하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점차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남녀 주인공은 영화에서 소박하게 사랑을 표현한다. 작은 밀알 6개를 손등에 ‘꽃모양’으로 배치한 후, 도장을 찍듯 힘껏 눌러 ‘밀꽃’ 자국을 만들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한다. 서로에게 ‘밀꽃자국’을 만들어 주는 장면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들의 꾸밈없고 순박한 사랑을 잘 점진적으로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영화 스틸 컷: 밀꽃자국.
Picture 5. Movie still cut: Wheat flower mark

주지다하시피, 중국 서북 지역 황토에서는 장미꽃을 재배하기 힘들다. 설령 장미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도, 형편상 살 수 없다. 영화에서 ‘밀꽃자국’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남녀 주인공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밀알)’으로 ‘가장 아름다운 꽃(밀꽃자국)’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유테는 욕심내지 않고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 혹은 ‘흙(土)’을 믿고 살아간다. “흙은 깨끗하다. 흙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데, 우리가 흙을 싫어해야하나?(土是干净的, 土都不嫌弃我们, 我们还嫌弃土吗?)”라고 한 마유테의 명대사처럼, 농민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농작물을 경작하면 ‘토지’는 배신하지 않아 결국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

VI. 마치며

시진핑이 추구하는 이른바 ‘중국몽(中國夢)’과 진정

한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농으로 일컫는 ‘농민’, ‘농촌’, ‘농업’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매년 ‘중양1호문건’을 발표하여 삼농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중양1호문건’을 살펴보다라도, 삼농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작물 생산량, 생산 규모, 생산 시설 확충, 농민의 수입 증대 등의 여러 문제를 연관지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빈곤 탈출 후 다시 빈곤해지는 현상’,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농촌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 등을 지양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삼농 문제 해결에 대한 지대한 노력에 불구하고 일부 농촌은 여전히 낙후되었다. 그중에서 올해 개봉된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는 중국의 일부 낙후된 농촌 현실을 짙진하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기실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가 단기간에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 얻은 이유와 빠르게 ‘먼지 속으로 사라진’ 이유도 서북지역의 낙후된 농촌의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중국 농민의 순박한 삶과 너그러운 마음, 부부의 소소한 일상 등의 이야기를 잔잔하고 담백하게 담아내었을 뿐만아니라, 중국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주거, 혼인, 빈곤, 의료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영화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매결혼 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걸린 중국 청년들을 고발하였다. 이는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촌 현실과 괴리된 농촌 주택 정책이다. 평생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흙으로 만든 집’을 철거하는 대신 도시의 아파트를 제공해주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농민은 토지, 가축 등과 분리되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농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였다. 지주 장용푸의 아들은 체불된 지세를 면제해 주고, 임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혈을 강요하였다. 또한 마유테의 친척은 정부의 주택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마유테의 죽음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농촌에 퍼져 있는 고질적인 물질만능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진정한 중국 삼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시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일부 낙후된 농촌 지역도 아우를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함께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ttp://www.lswz.gov.cn/html/xinwen/2022-02/22/content_269430.shtml.
- [2] http://www.bjszjggw.gov.cn/res/bulletin/0125_18912/1676216792462_m.html.
- [3]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3075100009?input=1179m>.
- [4] https://mp.weixin.qq.com/s?__biz=MzI3MzAwMDM4NA==&mid=2650187271&idx=1&sn=ebedc5c67f246b936fe3bef8b77a5b18&chksm=f32bf4a8c45c7dbec094c8db6e8977c47a611f2c839adf5dfc217e122627b7ce65f325e1698a&scene=27.
- [5] Cho Hyungjin, 「Chinese Experts on Three Rural Aspects(Sannong) and their Criticism of the Mainstream(Zhuliu)」,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Vol.21(1), 2019.
- [6] Cho Junhyeon, 「The Recent Developments of Chinese Rural Economy and TVE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30(6), 2008.
- [7] Ji Kwangsu, 「A Study on the San-Nong Policy and Dual Labor Markets in Chin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15(1), 2010.
- [8] Kang Ilgyu, 「View on Chinese New Rural Construction and Strateg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New Community Movement」 Scarecrow's Diar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63(4), 2020.
- [9] Park Kwangdeuk, 「Causes for "Three Problems in China's agricultural sector" and Policy Recommendations」,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4(1), 2004.
- [10] Shim Jongbeom, 「A Study of China's Urban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of Urban and Rural Reg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14(3), 2010.